



자동차/부품 Analyst 신윤철 yoonchul.shin@kiwoom.com

현대오토에버(307950)

완성차 신사업 발표에 따른 리레이팅

◎ Enterprise IT: 현대차 2030년까지 생산능력 최소 100만 대 확대

- 현대차는 2024 CID를 통해 2030년 연간 글로벌 판매량 555만 대 달성(BEV 100만 대 포함)을 위해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최소 100만 대(미국 30만 대, 인도 25만 대, 한국 20만 대, CKD 25만 대) 생산능력 확보할 계획을 밝힘. 향후 10년 간 현대차그룹의 대대적 증설 사이클이 가시화됨에 따라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Enterprise IT 부문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 성장에 기인한 외형성장세 기대
- 증설 사이클의 신호탄은 올해 10월 말 HMGMA의 준공. HMGMA는 현대오토에버가 HMGICS에서 사전에 테스트 가동을 거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최초 적용되는 양산 플랜트이며, 현대차는 2024 CID를 통해 HMGMA를 필두로 향후 건설되는 신공장에 해당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적용할 것임을 발표. 2023년 Phase 1 HMGICS → 2024년 Phase 2 HMGMA → 2027년부터 글로벌 전개(기존 공장 포함)
-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신사업 진출 역시 '소품종 대량생산 →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생산체제 변화에 필요한 기술적 대응이 뒷받침돼야 현실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 향후 현대차 신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현대오토에버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

◎ 차량용 SW: 현대차 SDV, 자율주행 사업 본격화

- 현대차가 향후 모빌리티 게임체인저 역할을 해낼 것으로 지목한 SDV를 구현해내기 위해 현대차그룹은 중앙집중형 아키텍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Tesla처럼 HPVC(High Performance Vehicle Computer) 제어기 적용 및 이를 관장하는 소프트웨어를 in-house R&D로 확보해낼 필요가 있음. 현재 현대오토에버 차량용 SW 부문이 Mobilgene 사업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향후 양산 라인업까지 SDV 소프트웨어 적용을 확산 전개해나갈 것으로 기대
- 현대차는 2024 CID를 통해 2026년 상반기 GV90을 시작으로 향후 차세대 UX/U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될 SDV 출시 타임라인을 밝힘.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Mobilgene 적용 차종 확대에 더불어 현대오토에버 차량용 SW 부문의 대표적 고마진 사업인 차량용 내비게이션 역시 중장기 매출 성장세 기대

현대차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확대 적용 계획



자료: 현대차, 키움증권 리서치

현대차 2030년까지 최소 100만 대 생산 능력 확대



자료: 현대차, 키움증권 리서치

현대차 SDV 전개 계획



자료: 현대차, 키움증권 리서치

현대차 자율주행 차량 파운드리 신사업



자료: 현대차,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08월 28일 현재 상기 언급된 중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